

天賜洪福



하늘이 내린 큰 복 | 2022년 06월 07일 제 132-1호 www.minghui.org 진상을 알아 길상을 얻다

세계 정계 주요 인사 1천여 명, 파룬따파 세계 흥전 30주년 축하



일부 국제 정계 인사들의 표창장과 축하 편지

파룬따파(法輪大法) 흥전(洪傳) 세계 30주년을 맞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천여 명의 주요 정계 인사들이 각지 파룬공(法輪功) 수련생들에게 표창과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파룬따파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한 뛰어난 공헌을 칭송했다.

파룬따파 표창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100여 개 도시에서 '파룬따파의 날' 선포

미국에서는 올해 100여 개 도시가 5월 13일을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여러 도시에서 국기 게양식을 열고 파룬따파의 깃발을 게양했다. 미국 수많은 국회의원, 주지사, 주의회에서 파룬따파와 그 창시자를 표창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 의장인 엘리스 스테파니크(Elise Stefanik)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이 뉴욕 파룬따파 수련생들에게 국회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은 "뉴욕주 파룬따파 수련생들에게 파룬따파가 중공의 박해 속에서도 지켜진 지 23년이 되는 날을 기념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델라웨어 주 등 여러 주 의회가 잇달아



캐나다 23개 도시, '파룬따파의 날' 축하 깃발 게양

캐나다에서는 23개 도시에서 깃발 게양식이 열려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시장들은 게양식을 주재하고 표창 서한을 낭독함과 아울러 '파룬따파의 날' 혹은 '파룬따파의 날'을 선포했다.

캐나다 파룬공 수련생들이 개최한 축하 행사에는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마이클 쿠퍼(Michael Cooper)는 집회에서 "리홍쯔 대사님이 널리 전하신 파룬따파는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의 삶을 불가사의하게 변화시킨 영원한 힘입니다"라며 "전 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파룬공 수련생들과 함께 서서 진선인(真·善·忍)과 중국 인권을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스웨덴 국회의원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한 건 진선인"

한스 로텐베르그(Hans Rothenberg) 스웨덴 국회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파룬공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유익하다"라며 "지금의 세계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진선인이며 선량함과 관용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중공이 저지른 파룬공 수련생 박해와 생체장기 적출의 반(反)인류 범죄를 강력히 비난했다.



스위스 연방의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로렌스 펠만 리엘(Laurence Fehlmann Rielle) 스위스 연방의원은 언론에 "파룬따파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수련할 수 있고 중국에서만 박해받는 파룬따파 수련자들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싶다. 누구나 선량, 관용, 성실이라는 그들의 가치관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엘 의원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중공 정부에 파룬공 박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파룬따파는 좋으며 (파룬따파는) 정법(正法)이다"라고 말했다.

인도 의사가 겪은 기적

글 / 밍후이 기자 이리안 취재 보도

인도 콜카타 의대 병원 성형외과 학장인 우트팔 비트 박사 (Dr. Utpal Bit) 는 젊은 시절 천식과 관절염,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며 매일 흡입 치료와 항생제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의사 인생에서 가장 믿기 힘든 기적을 만났다."

“저는 명상 등 다른 법문을 수련해 봤지만 그것은 단지 제 이 몸이란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약간 윤택유를 치는 것 정도였어요. 그러나 파룬따파 (法輪大法) 는 새로운 부속품으로 교체해 최신식 기계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20대 중반부터 병마에 시달리다

비트 박사는 20대부터 만성 기관지 천식을 앓았다. 천식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 약물은 관절염을 일으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양쪽 무릎이 아팠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먼지, 꽃가루, 목화, 각종 음식물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호흡곤란, 후두염, 피부질환 등을 일으켰고 30대에는 고혈압에 걸렸다.

이후 천식과 알레르기가 그를 무너뜨려 정상적인 일과 생활은 희망사항이었으며 매일 산소흡입과 항생제에 의존하며 생명을 유지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비트 박사는 2004년부터 정신적 귀



乌帕·比特博士

우트팔 비트 박사

착점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스승을 모셨고 각종 문과와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2011년 10월, 한 친구로부터 파룬따파를 소개받았다. 파룬궁을 배운 첫날 밤 오래간만에 편히 단잠을 잘 수 있어서 그는 매우 놀랐다. 천식이 기적처럼 사라지고 알레르기 현상도 좋아졌다!

비트 박사는 파룬따파 사이트 (falundafa.org) 에 접속해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李洪志) 대사님의 설법 녹음을 다운받아 매일 리 대사님의 설법을 듣는 동시에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몇 개월 후

그의 무릎은 더는 아프지 않았는데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괜찮았다. 현재 60대인 그는 몇 시간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30대에도 바랄 수 없었던 일이었다.

비트 박사는 “콜카타 의대 정형외과 학과장으로 일하며 매일 많은 환자를 보고 각종 응급 중증을 다루며 수천건의 수술을 한 적이 있으나, 자신의 변화는 의사 인생에서 가장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자만에서 겸손으로

비트 박사는 “이전에 저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교육과 인생 경험에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집에서도 권위적이었던 그는 전혀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부드럽고 너그러워진 비트 박사는 모순에 부딪혔을 때 ‘진선인 (真·善·忍)’ 원칙을 배워 자기 생각과 행위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바르게 고치려 노력했다.

“파룬따파가 저를 매우 겸손하게 이 끌었습니다”라고 비트 박사가 말했다.

대법 서적을 번역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파룬따파에서 직접 덕을 본 비트 박사는 이 불가 (佛家) 수련대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인도 서부 벵골주에서는 대다수가 벵골어를 쓰기에 인도어와 영어를 읽을 수 없었다.

▶ 3면으로



인도 콜카타 도서 박람회에서 사람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있다.



인도 학생들이 단체로 파룬궁을 배우다.

하늘의 뜻을 따르고 얻은 아들

[중국 투고] 나는 2007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몇 년간 남편은 베이징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는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면서, 게다가 어른들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하지만 나와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남편의 정자 활착률이 낮고 또한 기형이라 정자가 제자리에서 맴돌며 아주 적은 정자만이 앞으로 헤엄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다.

친구의 소개로 남편은 한약을 먹으며 몇 년간 돈은 많이 썼으나 효과가 없었다. 2015년 청명절에 한 마지막 검사 결과도 이전과 같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말했다. “고칠 수 없어요. 내가 파룬궁(法輪功)을 잘 수련할 테니 당신도 함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

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해요!” 그러자 대법을 믿는 남편은 날마다 9자진언(九字真言)을 읽기 시작했다.

그해 5월, 장쩌민 고소의 큰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반년간 중국에서 20만 명의 대법제자와 가족들이 파룬궁 박해의 원흉 장쩌민을 실명으로 고소했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대학시절 신체적인 이유로 대법을 수련하게 된 나는 그 후 몸이 매우 좋아졌는데 실제로 대법에서 혜택을 보았다. 대법이 박해를 당해 우리의 합법적인 연공 환경을 잃게 되자 나는 장쩌민 고소에 참여했다. 6월 초 베이징 양고(兩高,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에 고소장을 보냈고, 이틀 뒤 배달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6월 중순에 생각지도 않게 나는 임신했다! 마침 고소장 작성 중 임신이 된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나는 우리가 대법을 믿고 하늘의 뜻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했기에 복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이듬해 정월, 나는 10개월 만에 3.8kg의 매우 건강하고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 2면에 이어서

그래서 2013년부터 비트 박사는 벵골어 대법서적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파룬따파 원작을 잘 이해하기 위해 비트 박사는 중국어와 한어 병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어로 된 파룬따파 서적을 다운받아 매일 출퇴근 길에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선생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다.

번역 작업은 3년간 계속됐고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트 박사는 꾸준히 했다. 이것은 고향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일이고 대법 책이 있으면 고향 민중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

음을 비트 박사는 잘 알고 있었다. 비트 박사의 부인은 타자를 돕고 아들은 교정을 봐주며 번역 작업을 지지했다.

2016년 벵골어판 《전법륜》과 《파룬궁》이 잇따라 출간됐다. 연례 인도 콜카타 도서 박람회에서도 주말마다 파룬따파 부스에서 파룬따파 서적을 문의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많은 사람이 책을 사자마자 이어서 공법을 배웠다.

이번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대면 홍법(洪法)과 공법을 가르치는 활동이 중단됐다. 비트 박사와 수련생들은 매주 한 번씩 인터넷에서 파룬따

파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벵골어를 사용하자 인도 서벵골주와 이웃 방글라데시에서 인연이 닿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대법이 내 생명을 밝혀줘”

비트 박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대법 수련자들의 축소판과 같다. 파룬따파 수련으로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며 세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진선인에 동화시켜 남을 위하는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 비트 박사는 “파룬따파는 제 삶을 밝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파룬따파가 인도에 널리 전해지다

인도는 한때 불법(佛法)이 창성했던 곳으로 많은 사람이 불연(佛緣)을 갖고 있다. ‘진선인(真·善·忍)’을 수련의 원칙으로 하는 파룬불법(法輪佛法)이 인도에 전해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2004년 9월, 인도 파룬따파 불학회가 뭄바이에 등록돼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단체가 됐다.

파룬궁은 인도 학교에서 특히 성행한다.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에 따르면 일찍 2008년 벵갈루루에서만 80여

개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파룬궁을 수련했다. 체육 시간에 학생들은 단체로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연마한다. 수련 후 학생들은 몸 상태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수업에 더 열중하면서 보편적으로 학습 성적이 향상됐다. 현재 인도의 뭄바이, 뉴델리,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많은 대도시에서 파룬궁 연공장이 있다. 의료 자원이 결핍한 인도 사회에서 완전 무료인 파룬궁은 하늘이 준 선물이 틀림없다.

전염병에 감염된 유학생 커플이 3일 만에 회복



【랴오닝 투고】 해외에 있는 딸이 2021년 4월 대학을 졸업했지만 전염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남자 친구와 함께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2022년 3월 6일, 딸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열이 나고 전신이 아프고 기운이 없어 침대에 누워있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집에 알리지 않았으나 딸이 나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려줬다. 나는 파룬궁수련자로 ‘삼퇴’하면 평안을 지킬 수 있고 대법(大法)의 구자진언(九字真言)을 진심으로 염하면 인체 내 정기를 강화해 바이러스를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딸에게 완곡하게 알려주고 남자친구에게 ‘삼퇴’(중공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를 권고하며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구자진언을 염하도록 했다.

딸은 남자친구가 믿지 않고 고집을 부

리며 아무리 말해도 탈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딸이 권한 《구평공산당(九評共產黨)》 책을 보는 것은 동의했다.

나는 딸에게 전화를 남자친구에게 건네게 하고 “좀 관찮아졌니? 아직도 열이 나니?”라고 문자 열이 내렸다고 했다. 그날 밤 그가 밤새 《구평》을 읽었던 것이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중국에는 ‘있다 할지언정 없다고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 네가 빨리 낫기를 바란다. 어서 빨리 구자진언을 염해보렴. 마음과 사상에서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딸의 남자친구는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딸을 통해 그가 소선대에서 탈퇴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을 이용해 탈당 홈페이지에 그가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셋째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자친구가 그날 나와 통화 후 잠

들었는데 깨어난 후 전신에 힘이 났고 목만 조금 아프다고 했다.

딸의 남자친구가 회복된 후 딸에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남자친구가 조급해서 말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나한테 전염됐어!” 딸은 “난 괜찮아, 내 일이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했다. 딸은 대법을 배우고 연공도 배운 적이 있으며 일찍이 삼퇴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딸은 일을 마치고 죽만 조금 먹고 숙소로 돌아가 속으로 계속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구자진언을 염했다. 염하다가 잠이 들었고 5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활기차고 목만 조금 아팠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틀 반 만에 회복됐다.

딸을 보살피려던 남자친구는 딸의 정신상태가 좋아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어? 정말 신기하네. 이 법은(파룬따파) 도대체 무슨 원리야?”

딸은 “나는 조금밖에 배우지 않았어. 나중에 우리 집에 가면 엄마가 잘 알려 주실 거야”라고 말했다.

딸과 남자친구가 겪은 일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우한폐렴이 세계를 강타한 지 2년 반 되는 기간에 여러 나라와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구자진언을 염해 전염병 겁난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이 보도됐다.

《황제내경》에서 ‘인체 내에 정기(正氣)가 충족하면 사기(邪氣)가 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파룬따파는 고덕불가(高德佛家) 대법으로 진심으로 구자진언을 외워 염하면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공진이 일어나 인체 내 정기가 강화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

축복 큰 전염병에서 생사의 고비를 겪다

【우한(武汉) 투고】 나는 우한 원주민으로 올해 75살이다. 2020년 1월 23일, 우한 전체에 바이러스가 확산돼 도시가 봉쇄됐다.

2020년 1월 29일, 나는 열이 나고 끊임없이 설사하며 체온이 37.5도까지 올랐다. 처음에는 감기로 착각해 감기약(곽향정기환)을 먹었다. 이틀이 지나자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져 죽이나 국수를 먹을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기침하고 힘도 없으며 미열 증세를 보였다.

2월 1일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우한폐렴 진단을 내렸다. 병원은 침대가 부족해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다. 2월 3일에야 나는

병원에 입원했고 가족들도 동시에 격리됐다. 2월 4일에 나는 전염병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하고 며칠은 식욕이 더 나빠져 아침 한 끼만 먹었고 호흡도 순조롭지 못했다. 나이가 많은 나는 전염병에 걸린 후 매우 긴장했다.

당시 우한의 전염병 상황은 매우 심각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나와 같은 병실에 있던 한 노인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나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고 화장실에 갈 때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갔는데 좌변기가 없어 매우 힘들었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20년이 넘는 아내가 늘 내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구자진언을 성심성의껏 읽으면 재

난을 피하고 액막이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고 나도 매우 믿었다. 그래서 입원 기간 매일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를 읽으며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 병세는 정말 서서히 호전됐고 체력도 빨리 회복됐다. 재검사 결과 몸에 항체가 생겨 열흘 만에 퇴원했다. 식당으로 격리됐던 가족들은 14일 만에 귀가했다. 구자진언의 위력을 목격한 가족들은 모두 대법의 신기함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한이 봉쇄된 전후로 감염자가 매우 많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정말 기적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사의 재앙에서 도와주신 대법과 사부님께 감사드린다.